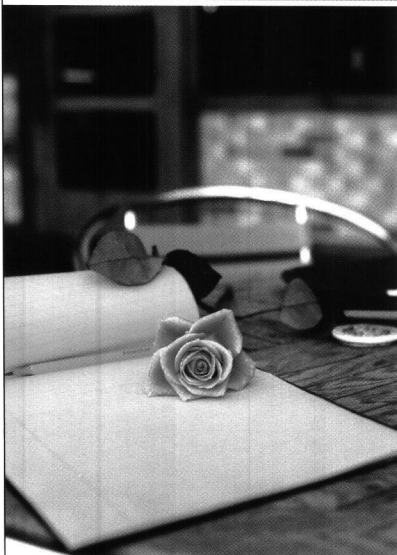


불황을 헤쳐나가는 대비책 철저하게 준비해야...

본지 · 김한웅 상무



육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닭고기 업계 전체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계 입식수수의 증가로 생산과잉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지는 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날씨마저 초여름 기운을 보이면서 육계 생산성이 급격히 좋아져 옆친 데 똥친 격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전년도에 대비, 같은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닭고기 생산물량이 증가한 데다가 수입 닭고기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경기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닭고기 업계 내에서도 무조건적인 닭고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하여 갖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이 만만치 않아 고전을 지속하고 있다.

닭고기 업계의 불황은 이미 작년서부터 시작됐다. 토종닭업계의 가격폭락을 필두로 전년도 12월, 그리고 올 1월에 이르기까지 닭고기 업계는 육계가격 폭락에 따른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올 3월 들어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육계가격이 회복하는가 하더니 결국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회복돼 또다시 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대체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졌지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어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몇 년간 불황이 지속되리라는 전망도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원종계(GPS) 도태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판단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많은 불황이 예고됐고 잠시 어찌 하다가 해결되곤 했지만 이번에 예고되는 불황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적던 많던 간에 매년 성장세를 이어왔고 증가분만큼 소비증가가 이를 상쇄시켜 왔으나 국내외 불어닥치고 있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 소비증가가 주춤한 상황에서 닭고기 시장이 매년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닭고기 시장의 약진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할당관세 등을 통하여 수입된 닭고기가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소비시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빠르게 닭고기 소비시장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냉동통다리 해체육이 닭꼬치, 닭 강정, 순살치킨 형태로 가공돼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전철역 주변의 포장마차, 재래시장 등에서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3월말까지 2만7천7백 톤의 닭고기 수입이 이루어지는 등 외국산 닭

고기 수입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이런 물량이 국내 전체 닭고기 시장을 최소 5% 이상 잠식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결국 과잉생산과 소비 정체, 여기에 수입육의 약진까지 가세되면서 국내 닭고기 업체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닭고기 생산업체 스스로가 통제기능을 상실한 채 규모확대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업체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한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 이를 방치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